

일본 쇠고기 브랜드화의 실태와 전망

和光大學 經濟學部 小林弘明(고바야시 히로아키)

1. 서론

일본은 1991년 4월에 종가세율(從價稅率)^① 70%의 관세하에 쇠고기시장을 자유화하였다. 그 이후 관세율은 1992년도에 60%, 1993~1994년도에 50%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UR합의의 실행을 위하여 1995년에서 2000년도까지 매년 관세율을 균등하게 인하하여, 현재는 관세율이 38.5%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쇠고기 관세상당량(關稅相當量)^②이 200%정도, 즉 국내가격이 국제가격의 3배라고 하는 집계결과를 보이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쇠고기산업은 최근 10여년 동안에 심각한 국제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시장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쇠고기산업은 결과적으로 그리 심하게 축소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장래성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도 별로 많지 않다.

일본의 쇠고기산업이 존속할 수 있었던 최대요인으로는 수입쇠고기과 국산쇠고기간의 품질차가 지적되고 있다. 즉 자유화 및 관세율 인하로 인한 수입쇠고기의 국내가격 하락 폭보다는 국산쇠고기의 가격하락 폭이 작았던 것이다. 이 품질차의 배경은 고품질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和牛^③라는 일본

본 원고는 2000년 10월 26일 영남대학교 부설 한우연구소에서 한우브랜드육 생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원고를 재공받아 게재함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고유품종이 사양되고 있는 점이다. 또한 유용종 쇠고기의 경우에도, 사양방법의 차와 신선도면에서의 우위성으로 인한 탓인지, 수입쇠고기보다도 높은 시장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쇠고기생산자는 이러한 우위성을 살리고 나아가 산지별로 독자 브랜드를 발전시킴으로서, 보다 수익성이 높은 쇠고기생산을 도모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상과 같은 일본 쇠고기경제의 현 상황을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설명하며(2절), 화우육 브랜드화의 실패를 소개한다(3절). 2, 3절의 예비지식으로서 1절에서는 일본 쇠고기생산 실태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2. 일본의 소고기생산

일본 쇠고기생산은 여러 개의 그룹으로 구성된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은 (1)화우 송아지 생산부문, (2)화우 비육부문, (3)낙농부문, (4)유용종 자우육성부문, (5)유용종 비육부문으로 분할하는 것이다.

유용종은 대부분이 홀스타인 종이다. 통상 생후 2, 3개월경까지를 보육단계, 9, 10개월(화우) 또는 6, 7개월(유용종)까지가 육성단계이며, 그 이후는 비육단계이다. 일본 쇠고기생산의 특징은 다수의 생산자 농가에 의하여 화우, 유용종의 송아지생산과 비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송아지는 지역내뿐만 아니라 원격지의 비육농가에도 판매되어 진다. (1)과 (2), 또는 (4)와 (5)를 일관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一貫經營」(일관경영)이라고 한다. 화우 일관경영은 드물지만 유용종 우육생산의 일

관경영은 일반적이다. 화우 송아지육성만을 행하는 경영은 극소수이다. 또한 낙농가가 일부육성을 행하는 경우는 다수라고 보여지지만, 비육까지 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부문의 일반적 형태와 근년의 농가수, 사양두수 등을 설명한다.

(1) 화우 송아지 생산부문

번식경영이라고도 한다. 송아지생산용의 어미(번식빈우)를 사양한다. 생산된 송아지는 보육(생후 2~3개월) 육성(9~10개월)후 가축시장에서 판매된다. 가장 생산적일수 있는 부문으로서 98년 2월 현재 약 11만호의 농가에 의하여 약 57만두의 번식빈우가 사양되고 있다. 송아지의 총생산두수는 약 50만두, 중산간지역과 섬 등 조건불리지역의 입장에서는 특히 중요한 부문이다.

(2) 화우 비육부문

화우 송아지 또는 경산우를 육용으로 비육한다. 송아지의 경우 비육기간은 19~21개월 정도, 28~31개월령에 출하한다. 약 1만3천호의 화우 비육농가가 약 64만두를 사양하고 있다.

(3) 낙농부문

주산물은 우유이고, 송아지와 유우 노페우를 부산물로서 생산한다. 착유우로 육성되지 않는 송아지는 생산후 수일간에, 또는 일정기간동안 보육육성하여 가축시장에서 판매한다. 쇠고기 생산부문 중에서 가장 근대화가 진행되어져 있고, 98년 현재 약 3만7천호의 농가에 의하여 약 190만두의 유우(이중 착유우는 약 100만두)가 사양되고 있다.

송아지생산두수는 약 110만두.

(4) 유용종 송아지 육성부문

2, 3개월령까지 보육과 6, 7개월까지 육성을 행한다. 낙농가가 일정기간 육성하는 경우, 비육농가가 보육 육성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98년2월 현재 보육 육성만을 행하는 농가는 약 1000호, 비육과 보육 육성을 행하는 일관경영은 약 800호이며, 사양두수는 각각 약 18만두씩이다.

(5) 유용종 비육부문

육성과 비육을 행한다. 비육기간은 14, 15개월 정도이고, 20~22개월령에서 출하한다. 98년2월 현재 약 5200호의 유용종 비육경영이 약 72만두를 사양하고 있다.

모든 부문에 있어서, 경영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규모확대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가장 규모확대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화우 자우생산부문이지만, 고령자와 여성에 의한 부업적인 영세경영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논농사 등과의 복합경영을 전제로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존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두이상의 규모에서 번식빈우를 사양하는 것이 그 조건일 것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쇠고기생산은 수입농후사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단 화우 송아지생산만은 조사료중심의 사료 급여체계이다. 목초외에 벗짚이 중요한 조사료원이다. 검역문제가 해결되고 엔고였던 80년대 후반부터는 건초를 중심으로 한 조사료 수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화우 송아지생산은 아직도 토지이용형의 생산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와 더불어 여타 연구결과에 의하면, 목초지, 논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료 생산기반은 번식경영의 규모확대를 위한 중요한 요건임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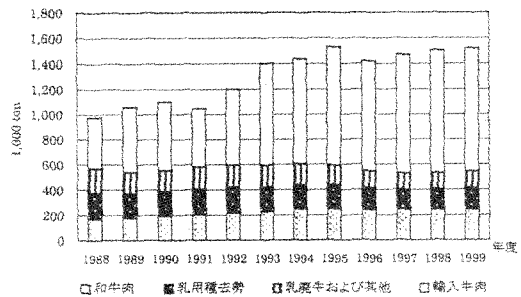
3. 쇠고기경제의 현상향

(1) 수급동향

[그림 1]은 지육 단위로 살펴 본 일본의 종류별 쇠고기 공급량을 나타내고 있다. 외국산 쇠고기는 대부분 부분육으로 수입되고 있으므로, 실제 수입량을 보류율(歩留率)⁽⁴⁾ 0.7로 나눈 수치이다. 즉 실제로 700톤 수입한 경우 이 그림에서는 1000톤 수입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우선, 국내생산은 90~95년경의 약 60만톤에서, 근년 53, 54만톤정도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유용종 쇠고기생산량의 감소가 그 원인이다. 화우육 생산량은 80년대 후반부터 94, 95년까지 약간씩 증가하였고 이 후에는 안정되어 있다. 유용종 쇠고기생산이 감소한 이유의 하나는, 우유생산량 증가

[그림 1] 종류별 우육공급량 추이



* 자료 : 1. 식육유통통계(농림수산성)

2. 畜産の概報(농축산진흥사업단)

주 : 1. 지육단위. 부분육으로부터 지육으로의 보류율은 0.7로 가정함.

2. 연도 : 당년 4월~익년3월

경향이 둔화된 상태에서의 생산성 향상, 즉 1두당 착유량(연간 7000Kg을 상회하고 있음)의 증대에 있다. 일정량의 우유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착유우 두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유용종의 사양두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90년대 초까지는 일본 쇠고기생산의 1/3정도를 점하였던 화우의 점유율이 99년도에 44%까지 상승하였다.

91년의 자유화 이전에도, 일본의 쇠고기수입은 미국의 정치적 압력과 소비자 이익을 대표하는 국내 여론으로 인하여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91년의 자유화는, 88년의 미국·일본간 그리고 일본·호주간에 체결한 시장개방협정 BMAA(Beef Market Access Agreement)에 의한 것이다. 88~90년이 이행기간으로 설정되고, 자유화에 의한 급격한 영향을 완화할 목적으로, 수입쿼터를 크게 확대하는 조치가 행해졌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자유화에 선행하는 이 기간에 우육의 내외 가격차가 급속히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다(小林弘明, 「자유화이후의 쇠고기경제와 내외가격차」(黒柳俊雄 出村克彦 廣政幸生編著『농업과 농정의 경제분석』1996년, 大明堂) 등).

자유화가 실시된 91년에 쇠고기수입량이 감소한 것은, 이 이행기간에 수요를 초과하는 수입이 이루어져 대량의 재고가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관세율 인하와 엔고를 배경으로 하여 쇠고기수입량은 95년까지 순조롭게 증가하였다. 96년의 수입량 감소는, 여름에 O157⁽⁵⁾에 의한 식중독사건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쇠고기소비를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99년도의 수입량은, 지육단위로 97.5만톤(무역통계에 의한 부분육단위로는 68.3만톤)이다. 9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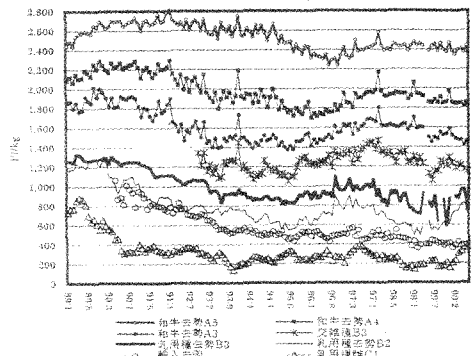
에 50%를 하회하던 자급율은 99년도에는 36%이었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내생산량은 별로 감소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수입증가는 거의 국내소비량의 증가에 의하여 흡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가격동향

[그림 2]는 자유화 직전인 89년부터 89년 6월까지의 쇠고기도매가격 추이이다. 국산 쇠고기가격은 동경 식육도매시장의 지육도매가격이다. 수입 우육가격의 경우, 수입가격에 보유율 0.7을 고려하고, 관세액을 더한 것을 수입우육의 국내 지육도매가격으로 산정하였다.

실제 수입에 있어서는 관세이외에도 제경비가 소요되기에, 이 수치는 약간 낮게 산정된 것이다. 그리고 상당히 정육과 근사한 지육이 수입되고 있는 점등, 수입품의 형태를 보아 보유율을 0.7보다 작은 수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 [그림 2]의 수입우육의 국내 지육도매가격은 낮게 산정된 것이라 하겠다.

[그림 2] 동경식육도매시장의 지육가격과 수입쇠고기의 국내도매가격 추정치



* 자료 : 1. 식육유통통계(농림수산성)
2. 畜産の情報(농축산진흥사업단)
주 : 수입쇠고기가격은 평균CIF가격(엔화기준)에 관세액을 더한 것임.

국산쇠고기를 품종별 그리고 품질등급별로 분류하여 7가지 계열로 나누었다.

근년에 있어서 가장 고품질인 화우 A5등급과 가장 저품질인 유용종 암소 C1등급간에는 6~12배의 가격차가 있다.

쇠고기의 등급 품질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이 절에서는 전반적인 시장가격동향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비프-사이클(Beef-Cycle[®])을 고려하면서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쇠고기 수입쿼터가 대폭 확대된 88~91년 초 사이에 저품질, 즉 유용종 거세우 B2등급과 유용종 암소 C1등급의 도매가격은 대폭 하락하였다. 전자는 3할 정도 하락, 후자는 5할 이상으로 하락하였다. 동 기간에 중품질의 화우 거세 A3등급과 유용종 거세 B3등급의 가격은 안정적이며, 고품질의 화우 거세 A4 및 A5는 가격이 상승하였다.

고품질 우육의 추세는 비프-사이클(Beef-Cycle)의 반영, 또는 당시의 호경기(거품경제)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역으로 저품질 쇠고기의 경우, 비프-사이클(Beef-Cycle)이 상승하는 국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시장개방의 영향이 상당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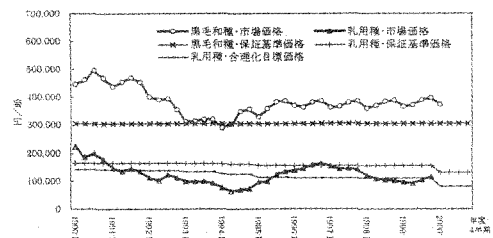
② 91년4월의 자유화에서부터, 70% → 60% → 50%로 관세율이 인하된 94, 95년까지는 모든 등급에서 가격 저하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격저하의 정도는 저품질 등급일수록 현저하다는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화우 거세 A5의 가격은 약 1할 정도만 하락하였지만, 화우거세 A4 및 A3는 2할 전후, 유용종 B3는 약 3할, 유용종 거세 B2 및 유용종 빈우 C1은 4할 전후로 하락하였

다. 수입우육가격은 거의 5할 정도 하락하였다. 이 기간은 비프-사이클(Beef-Cycle)에 의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이므로, 비교적 고품질 등급인 쇠고기의 가격하락을 수입쇠고기에 의한 영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③ 95년 후반 이후, 98, 99년경까지는 비프-사이클(Beef-Cycle)이 상승하는 국면이라고 여겨진다. 실제로 국산쇠고기의 모든 품종 등급이 95, 96년을 최저점으로 가격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품종 등급이 90년 또는 89년의 최고가격까지는 상승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 기간은 일본경제가 장기 불황에 처한 시기이기에, 고품질 쇠고기가격이 충분히 상승하지 못한 원인중 하나가 장기불황이라고 여겨지지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쇠고기수입 확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도매시장의 지육가격 동향은 송아지가격의 움직임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림 3] 육용 송아지의 시장가격과 정제가격 1: 흑모화우 및 유용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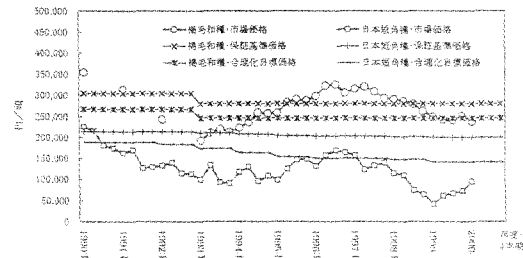
[그림 3]은 화우를 대표하는 흑모화종(黒毛和種)과 유용종의 송아지가격 동향이다. 유용종 송아지가격은 90년 이후 94년까지 쇠고기가격 하락 영향을 받아 1두당 약 20만엔 수준에서 일시적으로는 6만엔까지 하락하였다. 유용종 송아지가격은

차기 비프-사이클(Beef-Cycle)에서 최고 16만 엔까지 회복하였으나(96년도 제4분기: 97년1~3월), 99년도 제2분기(7~9월)에는 9만엔으로 하락하였다. 현재는 재차 상승국면에 있다고 보여진다.

흑모화종 송아지가격은 92년도 이후, 유용종보다 늦게 하락하면서, 94년도 제1사분기 약 29만 엔을 최저점으로 재차 회복되었다. 이 전의 국면에서 송아지가격이 약 22만엔(84년)까지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95년도 후반 이후부터 최근까지, 쇠고기 경제의 특유한 사이클을 명확히 보이지 않은 채 36~40만엔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다.

[그림 4] 육용 송아지의 시장가격과 정책가격Ⅱ: 갈모화종 및 일본단각종



*자료: 1. 畜産の情報(농축산진흥사업단)
 주: 1. 연도별 4분기 자료
 2. 갈모화종은 1993년이후 흑모화종에서 분리
 3. 유용종은 1999년도까지 「식용종 이외」로 분류

[그림 4]는 화우중에서도 품질이 하위인 褐毛和種과 日本短角種의 자우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시장평가가 낮은 일본단각종 자우가격은 주기변동을 동반하면서 추세적 하락이 현저하다. 시장평가가 비교적 높은 갈모화종 자우가격은 93년에 일시적으로 20만엔을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일본단각종은 쇠퇴경향이 현저하고 사양두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보고되고 있다.

(3) 쇠고기와 관련한 정책

쇠고기시장 안정화와 생산자보호를 목적으로, 국경조치⁷⁾ 외에 국내조치로서 송아지생산자에 대하여 「육용 자우생산자 보급금제도」(이하, 보급금제도라고 함)를 시행하고 있다. 자유화 이전부터 쇠고기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로써 「안정대 가격제도」가 제정되어 있지만, 현재는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다.

자유화 이후의 국경조치로는 관세만이 남아 있다. UR합의에서 일본이 양허한 쇠고기관세의 기본세율은 50%이고, 95년부터 균등한 세율인하를 행하여 2000년도에는 38.5%로 하는 약속이었다. 이것의 의미는, 수입 급증시 국내시장에의 심각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조치(safeguard)를 행할 수 있으며, 이는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기본세율인 50%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긴급조치는 2회, 즉 95년도 제2~제4분기와 96년도 제2~제4분기에 냉동쇠고기에만 발동되었다.

보급금제도에는,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 목표가격」, 즉 2가지의 정책가격이 있다. 정책가격은 흑모화종, 갈모화종, 기타 육종용종(肉專用種-주로 일본단각종), 유용종, F1(유용종과 육용종의 교잡종)의 각각에 대하여 설정되어져 있고, 다음과 같이 운용되고 있다.

▲ 보증기준가격>시장가격>합리화 목표가격의 경우: 보증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을, 관세를 수입원으로 하는 정부의 재정지출로서, 생산자에

게 지불함. 「부족불 지불제도」라고도 함.

▲ 보증기준가격>합리화 목표가격>시장가격의 경우 :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 목표가격의 차액은 부족불 지불제도로 생산자에게 지불하고, 합리화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중 9할 정도에 대해서만 생산자 적립금에서 지불한다. 적립금의 원천은 생산자 자신 및 정부보조에 의한다. 부족불 이외의 부분은 「안정기금제도」라고 함.

보증기준가격과 합리화 목표가격의 수준 및 실제 송아지시장가격과의 관련은, [그림 3] 및 [그림 4]에서 알 수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흑모화종 송아지가격은 안정적이며, 보증기준가격을 하회한 것은 94년도의 2회뿐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 단각종 송아지가격은 합리화 목표가격보다 낮은, 즉 정부에 의해 100% 지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 길다. 유용종과 갈모화종의 송아지가격은 비프-싸이클(Beef-Cycle)의 저점에 해당하는 최근에 합리화 목표가격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에 있다.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급금제도는 90년에 창설된 것이다. 그 이전은 「안정기금제도」만이 67년도(유용 수송아지는 72년도, 비육용 유용 암송아지는 88년)부터 시행되었다

4. 브랜드화의 실태와 전망

(1) 쇠고기의 등급제도와 품질 차

[그림 2]에 보았듯이, 일본 쇠고기경제의 특징중 하나는 품질 차이에 따른 가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품질에 대하여 특히 민감한 것이 그 배경

이겠지만, 품질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등급 및 유통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쇠고기의 거래 등급은 61년에 지육을 대상으로 제정되어져, 64년에 식육도매시장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이 「우지육거래규격」(「牛枝肉取引規格」)에 의한 판정은 쇠고기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서, 88년에는 도축된 육용우 144만두중 92만두(62%)가 등급판정을 받고 있다. 담당기관은 사단법인 「일본식육격부협회」(「日本食肉格付協會」)이다. 우육시장에서 등급은 가격결정을 위한 기본적인 판단재료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신뢰성이 높다. 식육도매시장에서의 가격결정은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동일 시장에서 거래 가격과 등급의 서열이 역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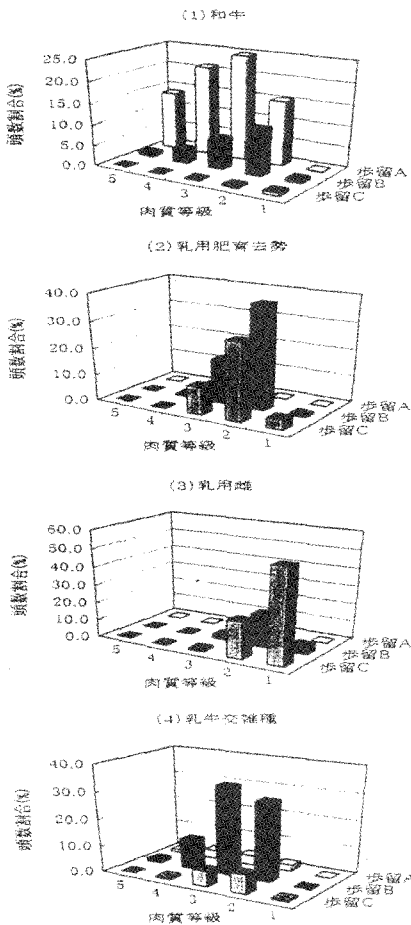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래등급은 88년에 개정된 것이다. 등급은 품종 암수별로, A, B, C로 구분되는 「보유율(歩留率) 등급」과 「1」~「5」로 구분되는 「육질등급」으로 판정된다. 예를 들면 「A5」, 「B4」, 「C1」 등과 같이 판정된다. 보유율 등급은 지육을 부분육으로 가공할 때에 손실되는 부분을 제외한 비율을 나타내며, 72% 이상이 A, 69~72%가 B, 69%미만은 C이다. 육질등급은 ①지방교잡, ②고기의 윤택함, ③고기의 숙성도, ④지방의 윤택과 질, 이 4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진다.

단, 판정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지방교잡이며, BMS No.라고 하는 12단계로 구성되는 지방교잡기준이 육질등급의 5단계에 대응된다. 수치가 클수록 고품질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거래 당사자는 「화우거세 A5」, 「유용종 거세 B4」, 「유용 암소 C2」, 「교잡종(F1) 암소 B3」등의 정보를 얻음

으로서 효율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림 5]는 98년 도매시장에 출하된 육용우의 등급판정 결과이다. 화우, 유용 비육 거세우, 유용 암소, 유용 교잡종(F1)별로 보유등급 육질등급 두 수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화우가 가장 높은 등급을 받고, 다음으로 F1, 유용 비육 거세우 순서이며, 유용 암소의 지육은 평균적으로 가장 저품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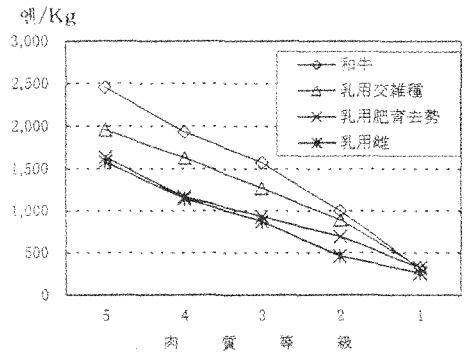
[그림 5] 식육중앙도매시장의 지육규격별 두수



* 자료 : 1. 축산물유통통계(농림수산성)
2. 畜産の情報(농축산진흥사업단)
주 : 화우이외의 품종은 유용종과 교잡종으로 나누어 유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집계치이다.

[그림 6]은 등급판정 결과와 도매시장에서 형성된 거래가격을 등급별로 나타낸 것이다. 동일한 등급이라도 품종에 의한 가격차가 있지만, 육질등급의 차이에 의하여 가격차가 더욱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격차는 부분육 시장에서도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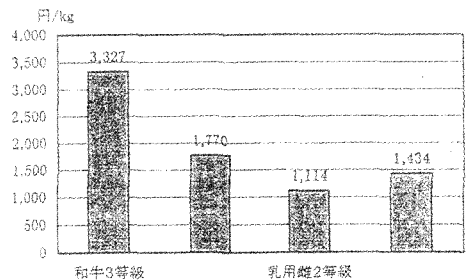
[그림 6] 품종별·육질등급별 지육도매가격(1998년)



* 자료 : 1. 「平成11년도 축산물유통통계」(농림수산성)
2. 畜産の情報(농축산진흥사업단)
주 : 1. 화우이외의 품종은 유용종과 교잡종으로 나누어 쇠고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장만을 대상으로 한 집계치이다.
2. 보유등급별 거래두수를 기준으로 한 평균가격이다.

[그림 7]은 각 부위별 보유율에 근거하여 추계한 부분육 평균가격(92년 5월 수치)이며 수입육과 비교하였다. 소매점에서 등급을 표기하는 경우는 없으며 산지표시를 하는 것(행정지도에 의한 것임)이 일반적이다.

[그림 7] 부분육 시장의 쇠고기 가격차(1992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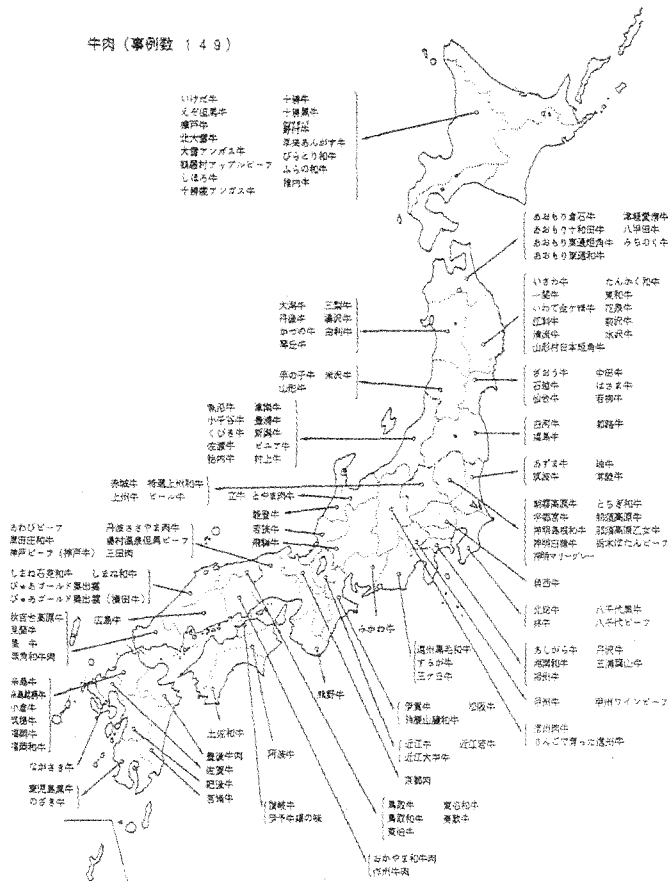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시장제도는 생산자가 고품질 쇠고기를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작용을 하며, 또한 생산의 지침이 되고 있다. 화우 고급브랜드 산지가 지향하는 것은 물론 A5 또는 A4이다. 산지 상표화=브랜드화를 지향하는 산지는, 예를 들면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선전과 익숙하지 못한 판매활동에 전념하지 않아도, 높은 등급의 쇠고기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전국규모 및 각지에서 자주 실시되는 장려

회, 공진회(共進會)와 같은 일종의 경진대회는 브랜드화를 지향하는 산지가 실력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동경시장의 전국규모 장려회는 73년부터, 전국 축산물 농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주최하고 농림수산대신상이 수여되는 육용우 지육 공진회는 76년부터 각각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일류 브랜드」로 일단 시장에 인지되어지면, 실제 등급보다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고급 브랜드일수록 고급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또한 진열대중 좋은 위치에 진열되어 진다.

[그림 8] 산지 브랜드화 식육 일람표



1995년 현재, 中央畜産會資料

(2) 쇠고기 산지의 브랜드화와 前澤牛·飛驒牛의 사례

[그림 8]과 같이 95년 현재 쇠고기의 경우 149개의 브랜드가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쇠고기산지가 상표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유용종 등 흑모화종 이외의 품종에 의한 브랜드도 많고, 널리 일반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산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고급육으로서 가장 유명하고 긴 역사를 가진 것은 『松阪牛』(三重縣), 『神戸牛』(兵庫縣), 『近江牛』(滋賀縣) 및 『米澤牛』(山形縣)이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前澤牛와 飛驒牛는 신종 고급 和牛肉 브랜드이다.

가. 前澤牛

前澤町이 있는 동북지방은 전쟁 전에는 말의 산지였으며, 종전 후에 역용으로서 화우가 도입되었다. 송아지는 부산물로서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농가에게 있어서 가격에 관계없이 팔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말 사육농가 등은 장래에 쇠고기를 소비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였고, 육질개량을 지향하는 품종개량이 일찍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화우산지를 지향하고 이 지역이 우선 본격적으로 송아지생산을 시작한 것은 동결정액에 의한 인공수정이 실용화되고 있었던 60년경부터이다. 번식용 암소는 鳥根로부터, 종모우는 兵庫系(但馬牛)를 도입하였다. 「和人號」라고 하는 우수한 종모우도 도입하여 前澤町을 포함한 但江지역의 품질개량이 진행되었다. 품질개량의 목표는 「증체가 좋고 지방교잡도 적절할 것」이었다.

前澤町의 육우가 처음으로 동경 식육도매시장에

출하된 것은 70년 또는 71년이다.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도 이때부터 점차 확대하였다(이전은 상인을 통한 정전출하). 73년부터는 동경시장에서 불량상인의 담합 또는 위압적 거래를 단절시키고, 공정한 경매가 시행됨으로서 육질관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 이전은 외견에 의한 육질 판정으로 품질에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었을뿐만 아니라, 생산자 자신이 생산한 육우의 품질을 알기 위한 정보도 제한되어 있었다. 생산농가에게 있어서도 공정한 경매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비육기울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농협과 생산자가 일심동체가 된 육질개량을 위한 노력은 70년대 후반에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前澤牛는 전국 축산농업협동조합 연합회가 주최한 육용우 지육 공진회에서 77년에 입상하고, 82, 83년에 우수상, 84년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고급 브랜드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85년에는 이 공진회에서 농림수산대신상을 수상함으로써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였다.

고품질 쇠고기의 생산을 지향하여 불과 10여년 사이에, 前澤牛는 松阪牛 등과 함께 열거될 정도로 브랜드명을 확립한 것이다. 前澤町의 쇠고기생산자의 노력과 산지 브랜드화의 조건은, 참고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정리된다.

① 품질의 균질성과 정시 정량출하

일반적으로 화우의 개체차는 크다. 그러나 유통업자는 품질이 일정한 가운데 적당한 단가로, 수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고품질이라도 소량이라든가, 출하량이 안정적이지 못한 브랜드는 경원하게 된다. 近江牛, 松阪牛에서

보여지는 어려움이다. 前澤牛의 경우, 174호(90년 수치)의 농가에서 사양된 1,500여두의 육우는 거의 4등급이상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고품질우 생산기술의 향상을 위해서는 몇몇 농가만이 아니고 다수가 모여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지역 일관체제

양질의 송아지 생산자가 지역내에 입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지역에서 송아지를 도입하면 균질적인 쇠고기가 생산되지 않는다. 역으로 화우산지로서 번식부문만이 있으면 송아지시장을 구입시장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역내 비육농가의 존재 의미는 크며, 비육부문에서의 좋은 성적을 번식농가의 이익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산지전체의 장점이 된다. 환경변화가 영향을 미치는 탓인지 원거리에서 가져온 송아지를 사양하면 양질의 쇠고기가 생산되기 어렵게 되는 경향을 지적하는 생산자도 있다. 단, 번식 비육일관경영의 산지를 만드는 것은 적어도 20년이 걸린다고 한다. 또한 비프-사이클(Beef-Cycle) 등에 의한 가격변동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금후 경영내의 일관경영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⁸⁾

③ 저비용 생산을 지향하지 않는다

고급우육(A5)을 목표로 한다. 비용과 관리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품질(등급)이 떨어지는 생산체제로 하는 것은 고급브랜드 산지로서는 위험한 것이다. 예로 A4를 지향하면 A3가 생산된다. 1,000엔/Kg으로는 이익을 낼 수가 없다. 육질향상을 지향하는 경우 비육기간은 이전보다도 길어진다. 또한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비용절감을 위해서 무리하게 규모를 확대하는 것도 육질저하

를 초래하게 된다.

④ 비농사부문과의 복합

조사료기반이 되는 경종부문의 존재가 필요하다. 번식경영에 있어서 조사료기반의 중요성은 본고에서도 기술하였지만 비육부문에 있어서도 양질의 벗짚은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면적에 적합한 적정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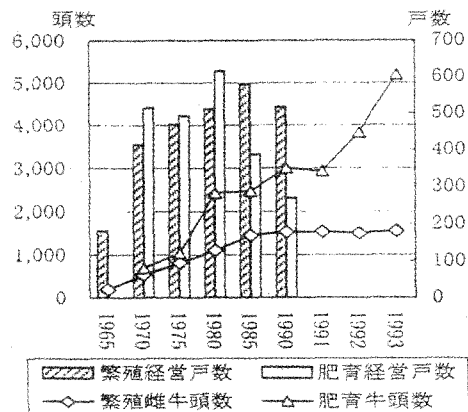
⑤ 품질향상에 대응한 소비선전활동과 유통조직

소비자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가지 선전활동을 행하고, 지정 판매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⑥ 농협의 역할:

농협의 참여는 적극적이었다. 예탁우제도(預託牛制度)⁽⁹⁾도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눈부신 활약을 보이던 前澤町の 육우생산이 근년에 들어 고급브랜드 산지로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92년 이후 지육가격은 하락추세에 있으며, 前澤牛의 도매가격은 평균 이상의 하락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9] 前澤町の 육우용 사양



*자료: 원자료는 농업센서스 및 前澤町の 노림과 조사에 의함.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우량 송아지가 타산지의 생산자에게 경락되어져, 前澤町の 비육농가가 우량 자우를 구입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생산자가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점 등을 참고문헌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림 9]에서 알 수 있듯이, 근래에 前澤町の 비육우 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지역밖으로부터의 송아지 도입이 행해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상기 ③과 모순되는 행동이다(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음).

나. 飛驒牛

岐阜縣의 고급 브랜드인 「飛驒牛」의 역사는 前澤牛보다 짧다. 岐阜縣은 이전까지 지역별로 다수였던 상표를 78년에 「岐阜牛」로 통일하고, 화우 개량사업을 강화하였다. 縣시험장의 노력으로 81년에 但馬로부터 도입한 『安福號』라고 하는 종모우가 경이적인 능력을 발휘하였다. 安福號의 후대가 출하된것은 84년부터이지만 A5, A4(당시는 『특선』 『극상』)로 등급판정을 받는 비율이 아주 높았고, 87년에는 전국 수준의 공진회에서 이름을 떨쳤다. 동시에 자우시장도 활성화되었다.

安福號가 岐阜縣 飛驒에서 사양되었기에 88년 상표명을 「飛驒牛」으로 변경하였다. 단, 고급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육으로 A5 또는 B5로 판정된 것만을 「飛驒牛」로 하는 엄격한 규약을 적용 받았다. 또한 시장대응으로서는, 특정 판매점·요리점이 認定証과 간판을 표시하도록 하는 지정점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고급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12년동안 安福號를 약 3만7천두의 암소에 교배 시켜, 2만8천두의 송아지를 생산하였고, 3천두가

번식암소로 사양되었다. 동결정액을 1만2천회분 채취하여 95년 현재에도 적은 회수분이지만 남아 있다. 安福號는 93년에 사망하여 「神」과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후계우로서 우량 종모우를 30여두 남겼다.

安福號의 경제효과를 75억엔으로 산정하는 추계도 있다. 「飛驒牛」는 시험장과 일체가 된 품종개량 노력이 훌륭하게 결실을 맺은 결과일 것이다.

5. 요약과 결론

(1) 수입자유화가 일본의 쇠고기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소비자에게는 큰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지만,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경제환경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2) 그러나 국산우육은 품질면에서 수입우쇠고기에 대해 우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며, 수입 자유화에 의한 가격하락의 영향은 고품질 쇠고기일수록 작았다.

(3) 고품질 쇠고기생산으로 존재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산지의 움직임은 화우의 브랜드화 전략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단, 이 전략은 일본 소비자의 기호와 이를 반영한 등급판정 등 시장제도의 성숙이 전제조건이다.

(4) 화우의 육질을 결정하는 것은 사양방법만이 아니고, 혈통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前澤牛와 飛牛의 예와 같이, 고급 화우육 브랜드화에 성공한 산지는 품종개량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5) 前澤牛의 예에서 브랜드화 조건을 몇가지 기술하였지만, 균형적 시스템을 갖춘 산지로 육성

되기 위해서는 번식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 용절감을 위해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경중부문을 중요시하여 과대한 규모확대를 행하지 않는 등 독자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肉牛新報社 編集部 編, 『前澤牛ものがたり:牛と人がおりなす文化史』, 肉牛新報社, 1995. 4. 東京.
2. 岐阜縣 畜産會 編, 『名牛安福 物語:神様になった飛馬單牛』, 岐阜縣 畜産會, 1995. 3.

[주 석]

1. 증가세 : 관세에는 수입가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징수하는 증가세, 수입수량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종량세가 있다. 일본의 경우, 우육과 계육 등에는 증가세가 적용하고 있지만, 쌀과 맥류 등에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저하한 경우 종량세에 의한 것이 국내시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 즉 돈육의 경우는 국내가격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만 징수하는 차액관세제도라고 하는 특수한 방식도 적용하고 있다.
2. 관세상당량 : 국내시장이 관세 이외의 제도(비관세장벽 NTB: non-tariff barrier)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내외가격차로서 얻어지는 관세상당부분으로 정의된다. 어떤 상품의 수입가격이 100엔이고, 국내시장에서의 가격이 150엔인 경우, 관세상당량은 $(150-100) \div 100 = 50\%$ 이다. 정의는 단순하지만 신뢰성이 있는 수치를 구하는 것은 어렵다.
3. 화우 : 일본 고유의 품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흑모화종, 갈모화종, 일본단각종, 무각화종, 기타 교잡종 등 실제로는 몇 가지의 품종이 있다. 흑모화종이 대부분이고 한우를 모태로 교잡된 갈모화종이 다음으로 많다. 일본단각종은 수입자유화이후 사양두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근년에는 홀스타인종과 일본단각종 등에 흑모화종의 정액을 교배한 교잡종 F1생산이 활발하다.
4. 우육 유통단계에 있어서의 歩留(率) : 우육은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생체 → 지육 → 부분육 → 정육으로 순차적으로 가공되어 진다. 통계수치를 이용하는 경우 그 수치가 어느 가공단계의 것인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상, 국내생산통계는 지육단위이지만, 수입에 관한 무역통계는 부분육단위이다. 국내식육도매시장에서의 거래는 지육단위로 행해지고 있다. 화우의 경우, 약 700Kg의 생체는 약400Kg의 지육으로 가공된다. 이 경우 보유율은 $400 \div 700 = 60\%$ (지육율)이다. 지육을 부분육으로 가공하는 경우 보유율은 약 70%(가칭:부분육율)이다. 국내 전체의 수급, 즉 자급율 등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부분육단

위의 우육수입량을 이 보유율 0.7로 除算함으로써 지육단위로 환산할 수 있다.

우육수급에 관한 통계로서 신뢰성이 있는 수치는 지육단위의 국내생산량, 그리고 부분육단위의 수입량 수치이다. 생체단위의 생산량 및 정육 단위의 공급량에 관한 신뢰성이 있는 통계수치는 없다.

5. 정식명칭은 「腸管出血性 大腸菌 O157」이다.

6. 일본의 Beef-Cycle은 7년정도이지만, 90년 이후의 주기는 7년보다 약간 길었다.

7. 무역을 제한하는 국경조치 : 무역을 제한하여 국내생산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취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총칭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이고 투명성이 높은 것이 관세이며, 이 외에 수량제한, 국가무역 등이 경제적 조치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자유화라는 것은 국경조치가 관세만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하며 관세화라고도 한다. 또한 동식물 및 식품검역제도도 일종의 무역 제한기능을 갖는다. 이것은 병해충과 인간의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것으로 근년에 무역교섭에서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8. Beef-Cycle과 번식 비육 일관경영의 필요성과 문제점 : 우육생산에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에 육용우경영, 특히 비육경영은 가격변동에 의한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비육우가격이 약 100만엔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가정한다. 비육경영농가는 사료비 등의 경비를 감안한 후 50만엔에 자우를 도입한다. 그러나 비육은 20개월정도가 소요되기에 실제 판매가 가능한 시기에는 비육우가격이 80만엔으로 하락하여 손실을 보게 된다.

기술적으로 볼 때, 가격이 상승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역의 경우(저렴한가격에 자우를 구입하고, 비육우가 예상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도 발생할 수 있으나, 결코 이러한 변동은 농업경영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비육경영과 번식경영이 각각의 다른 주체라는 것이다. 번식과 비육이 하나의 경영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리스크는 해소된다. 일관경영을 추진하는 견해의 논거이며 농림수산성도 상당히 이전부터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관경영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지 않다. 번식과 비육은 전혀 상이한 기술체계이며, 하나의 경영 또는 1인의 농업자가 번식과 비육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9. 預託牛制度 : 비육경영의 경우 고가의 자우를 구입한 후 판매할 때까지 약 2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매년 자우를 구입하여야만 한다. 농가에게 있어서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농협 등에 의한 자금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예탁우제도는 단순한 자금의 대출이 아니고, 농협이 자우를 구입하고 비육경영농가가 비육 판매한 후에, 농협이 素畜(자우)대금과 이자를 제하고 농가에 판매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이다.